

#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을 준렬히 단죄한다

## 포연과 굉음이 그치지 않은 북침전쟁소동의 1.0월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대결 광증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대표적인 북침전쟁연습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지난 10월 4일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공격전대 비행 및 정밀폭격훈련을 감행하였다.

그리고는 《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 《윤정태세》를 갖추었다고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떠들며 허세를 부리었다.

한편 남조선호전광들은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주변해상에서 미국과 그 추종국들과의 연합기뢰훈련을, 6일에는 조선동해상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단, 일본해상 《자위대》 전투함선과 연합미사일방어훈련이라는것을 벌여왔다.

뿐만아니라 악명높은 미군특수부대와 《참수작전훈련》, 《연합신속대응훈련》까지 강행하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며 전쟁미치광이, 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행위도 공공연히 벌였다. 10월중순 역적패당은 군사분계선내에서 원일 포사격을 감행하며 짙은 화약내를 풍기었으며 지어는 최미의 열점지역인 서해해상에서까지 포사격을 해대면서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의 호전적정책은 10월말 남조선전역에서 《2022 호국훈련》을 감행한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 경거망동에는 가장 치열한 대가가 뒤따를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며 미국과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과 역적패당은 이번 전쟁연습에 스텔스전투기 《F-35A》와 《F-35B》, 전투폭격기들인 《KF-16》 및 《F-15K》, 공중급유기, 고고도정찰기, 조기경보기, 수송기, 직승기, 무인기 등 240여대의 각종

군용기들과 병력을 투입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공중훈련을 벌이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공격형 핵잠수함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전략폭격기까지 입의 시각에 연합공중훈련에 동원시키려 하고있다.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무모한 망동에 아닐수 없다.

《정권총말》과 같은 망발을 공공연히 웨치면서 공화국의 700개이상에 달하는 주요요직을 타격하는 연합공중훈련을 벌이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강행하는 이번 전쟁연습이 철두철미 북침전쟁시연회,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예비전쟁연습, 핵전쟁의 전주곡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은 오산하고있다. 특히 역적패당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가려보지 못하고 서부르케 불꽃처럼 휘두르고 있고 저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겠는가도 가능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고있다. 세찬 불꽃기를 내뿜으며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르는 주체관들을 두눈을 편히 뜨고 보면서 그 의미, 그 국광을 알지 못하고 있고 천출명장의 사열을 받으며 위대한 승리의 광장에 도도히 굽이친 조선식절대병기들의 장엄한 흐름을 기절초풍하면서 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다. 하기는 그 무지몽매한 머리,

### 비참하리라 전쟁광들의 운명은

볼구름 몰아온다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역적들이  
화약내에 찌든 전쟁광들이  
야망의 손 맞잡고 벌러놓은  
《한미연합공중훈련》

가소롭구나  
전투기들도 최첨단  
출격회수도 최대  
《력대 최규모》라고  
제법 으시대는 그 모양

실컷 허세를 부려보아라  
목이 쉬게 헛나발을 불어봐라  
우리의 눈엔  
강자앞에 질겁한 비렬한자들  
단말마적발약으로 안겨들거니

보여온다  
《강력한 대응》을 떠드는 궤변에서  
공포에 질린자들의 기러한 물골이  
소란스런 비행기의 굉음에서  
비참한 멸망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독특히 알라 상대가 누구인가를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다지고 다져온 중요와 분노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천만민민  
역적의 보금을 틀어쥐고  
원수적멸의 의지를 불태우는 땅이다

가중스런 침략의 날개 번득이며  
전쟁의 광기로 하늘을 어지럽혀도  
우리의 눈엔 들끓 부나비들일뿐  
신성한 우리의 명도를 침범하는 순간  
어리석음 깨달을 순간조차 없으리  
더러운 형제조차 찾을 길 없으리라

덤벼들라 전쟁의 부나비들이  
타죽을줄 모르고  
등불에 날아드는 부나비  
이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죽어 문질 땅조차 없어 불속에 재가 될  
전쟁광들의 숙명이다!

정용성



##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반미, 반전, 반윤석열투쟁 고조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특히 이번엔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수많은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감행한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은 공화국을 겨냥한 극히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을 노린 연합공중훈련을 감행해나선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무력충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현실로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남조선미국합동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할것을 윤석열역적

패당에게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전국민총행동》, 계례하나, 민주주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문명, 생명 등을 통해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족공멸, 참사를 일으킬 남조선미국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단죄규탄하며 반 《정부》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자주민주평화동맹인민족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 평화에 역행하는 무력시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군사적간담과 대결, 민족대참사를 초래할수 있는 전쟁연습을 중단할것을 들이내고있다.

각계층 투쟁단체 성원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정서,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주변에서 《삼천리군수강산》을 화약고로 만들지

말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윤석열역적패당과 미국을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이 미국 주도의 대북침략전선의 돌격대로 자처하는것은 머저리짓이다,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을 계기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핵전쟁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온 민족이 전멸할수 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간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윤석열《정부》가 《대북군사적행동》과 압박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청년학생단체들도 윤석열이건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미, 반전, 반윤석열세력은 총단결하여 평화를 수

특히 막대한 혈세를 바쳐가며 끌어들이고 첨단스텔스전투기 위해 만들어낸 화보를 년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한다.

2022년 《국방운영목표》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강군》을 보여주기 위해 《강한 국군》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화보는 각종 첨단무기들을 다루는 사병들의 《공지스러운 모습》을 담았다고 한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치료 불가능한 정신질환인 허세와 협잡병증세가 또다시 도진 모양이다.

최근 남조선 《국회》에서 벌어진 국방부에 대한 《국경감사》만 놓고보자.

그에 의하면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의 군사적강제에 기입해 구축한다는 《한국형3축타격체계》의 주요직접인 군용기들이 지난 5년간 부족품들이 없어 다른 비행기들을 몇 때에 맞추는 식으로 운용되고있었다는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 허세병자들의 역겨운 추태

그런데도 첨단무기이니, 《자랑스러운 국방》이니 하며 거짓말을 밥먹듯하고있으니 참 낮가죽도 두렵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첨단비대칭전력확보》, 《튼튼한 국방》, 《정신수양》을 운운하며 비단보자기들 썩워두고용병군대, 파첼무기군대, 부패타락한 군대, 쓰레기군대인 남조선군의 실상은 절대로 숨길수 없다.

이따위 무리를 거느리고 세계 군사강국과 맞서보겠다고 객기를 부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이 가소롭기 그지없다.

제 치지도 모르면서 무분별하게 날뛰는 호전광들에게 차폐될것이란 쓰디쓴 고배와 비참한 과멸뿐이다.

배영일